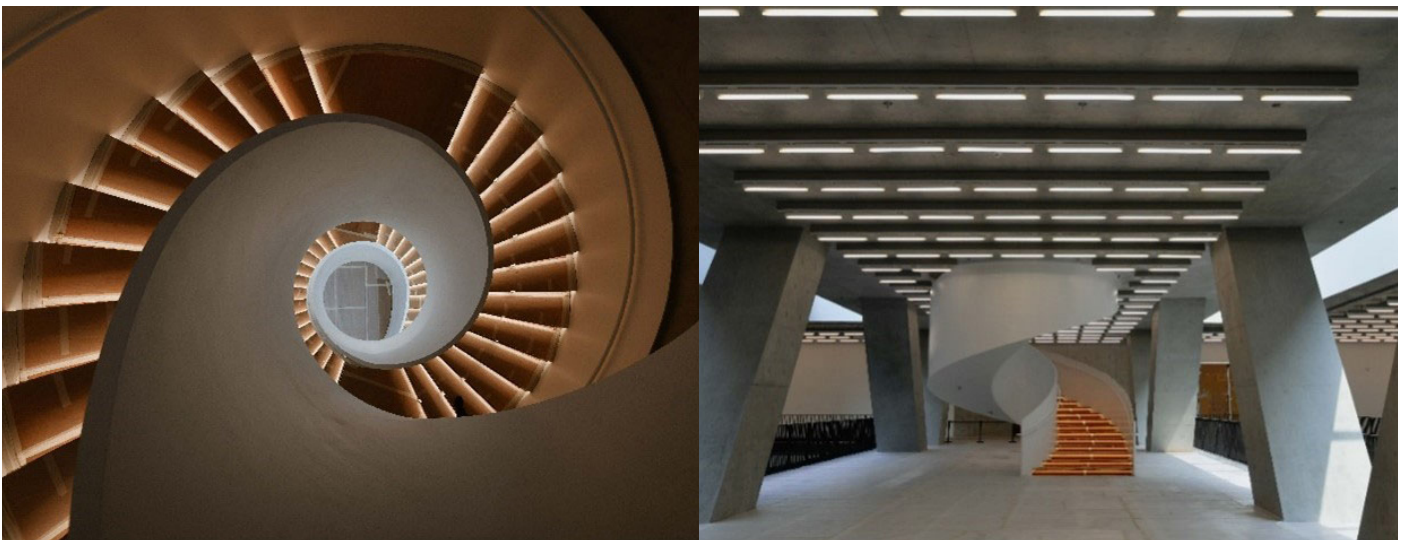


HONG KONG LINER



M+뮤지엄 건물 완공

2021년 말 개관을 앞둔 M+뮤지엄은 아시아 최초로 시각예술, 디자인, 건축, 무빙 이미지, 홍콩 시각문화 등을 망라하는 세계적 수준의 현대 시각문화 박물관이다. 빅토리아 하버가 내려다보이는 서구룡문화지구의 65,000㎡ 면적 내부에는 33개에 이르는 전시실(총 17,000㎡ 규모)과 세 개의 영화관, 미디어테크, 러닝 허브, 연구실, 뮤지엄숍, 레스토랑, 회원 라운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사무소 Herzog & de Meuron에서 TFP Farrells 및 Arup사와 협력하여 설계한 이 뮤지엄은 새로운 건축 아이콘으로 등극함과 동시에 글로벌 예술 문화 지형에 기여할 전망이다.



홍콩 정부는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홍콩 로드맵'을 발표

홍콩 정부는 지난 3월 17일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홍콩 로드맵'을 발표하여 장기적인 정책 목표를 세우고 전기차 보급 촉진 방안과 관련 지원 시설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캉생 홍콩 환경장관은 "홍콩은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첫 번째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이번 로드맵은 2050년 이전까지 모든 차량의 배기가스 무배출을 달성하기 위한 홍콩의 미래 방향을 담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내에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다른 목표와 함께 시행하며, '탄소배출제로, 대기청정, 스마트시티'의 비전을 향해 추진한다"라고 말했다. 주요 시행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자가용 전기차** : 2035년 또는 그 이전에 내연기관 자가용(하이브리드 자동차 포함)의 신규 등록 중단
- **전기 상용차** : 2025년 경에 구체적인 방향과 시간표 설정을 목표로 전기 대중 교통 및 전기 상용차 시험 운행 추진
- **충전 시설 인프라** : 전기차 충전 시설 인프라를 모든 지역으로 확장
- **유지보수 서비스** : 전기차 유지보수를 위한 정비사의 교육 및 훈련을 지원
- **배터리 재활용** : 향후 몇 년 내에 전기차 배터리 폐기에 대한 생산자 책임 제도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
- **혁신 및 협력** : 탈탄소화 기술 연구 태스크포스 구성 및 녹색 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한 2억 홍콩달러 규모의 녹색기술기금 설립

홍콩의 국제금융센터지수 순위 1계단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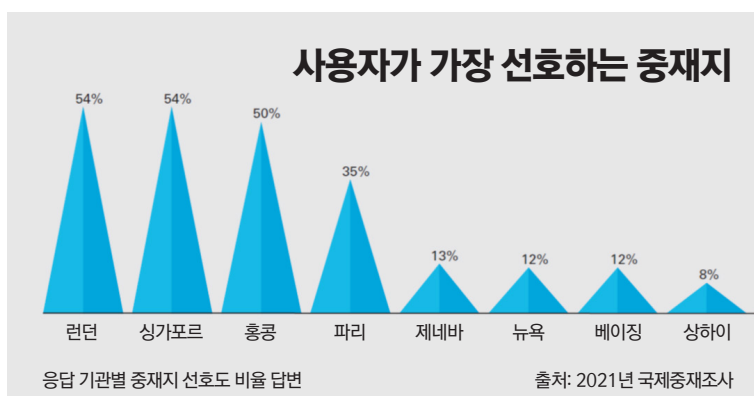


영국의 지엔(Z/Yen)과 선전의 중국종합개발연구원이 지난 3월 17일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보고서'에서 홍콩은 1계단 상승한 4위를 기록하였

다. 정부 대변인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전개와 글로벌 환경의 다른 불확실성과 함께 전 세계 금융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더욱 변동성이 높아

졌다. 그럼에도 홍콩의 금융 시스템은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으며, 연계 환율제도와 다양한 시장 측면이 질서 정연하게 작동하고 있다. 동시에 홍콩은 국제 금융 중심지의 제도적 강점이 있다. 우리의 시장은 강력한 인프라 지원, 국제적으로 정렬된 규제 체제, 법치주의, 큰 금융 인재 풀 및 금융 상품뿐만 아니라 정보와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으로 매우 개방적이고 국제화되어 있다. 이러한 경쟁 우위를 통해 홍콩의 위상을 국제 금융 중심지로 계속 굳힐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국제금융센터지수 보고서는 2007년부터 매년 3월과 9월에 발표되며, 최신 보고서는 114개의 금융 센터를 평가했다. 상위 5개 센터는 각각 뉴욕, 런던,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홍콩은 중재지 선호도에서 세계 3위를 차지



런던 컨메리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국제중재 조사에 따르면 홍콩이 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중재지 평가에서 3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조사에 응답한 기관의 50%가 홍콩을 선호하는 중재지로 선택했으며, 이는 지난 2018년 조사 당시 28%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또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선호되는 중재기관으로 한 단계 상승했다. 2021년 국제중재 조사는 국제중재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와 인식의 동향을 조사하는 것으로 1,200건이 넘는 설문지 답변을 받았으며, 국제중재 분야의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약 200건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팬데믹 퇴치를 위한 새로운 방침



팬데믹 퇴치 관련 조치 기자회견에서 캐리 램 행정수반(사진 중앙)과 로치링 노동복지장관(사진 오른쪽), 소피아 찬 식품보건장관(사진 왼쪽)

감염 상황이 통제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 정부는 지난 4월 12일 '백신 버블'을 기점으로 다양한 방역 조치를 조정, 팬데믹 퇴치를 위한 새로운 방침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캐리 램 행정수반은 백신 접종이 가져온 편의성이 국경 간 여행에 적용될 것이며, 이는 저위험과 중위험 지역에서 홍콩에 입경하는 사람들의 의무 격리 기간 단축, 백신 접종을 마친 홍콩 주민들의 항공 트래블 버블 참여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당과 관련된 시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조정되었으며, 술집, 파티장, 노래방 등과 같은 일부 시설도 '백신 버블' 하에 점진적으로 운영 재개가 가능해졌다.

한국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사람에 대한 탑승 및 격리 요건 강화

홍콩 정부는 2021년 6월 18일부터 한국을 감염 '고위험 지역 High-Risk Places (Group B)'에 추가한다고 발표하며 홍콩으로의 입경 및 격리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강화된 요건 하에서 홍콩 도착일 및 도착일 14일 이내에 한국에 체류한 모든 홍콩 거주자는 탑승 72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코로나 19 핵산 검사(a nucleic acid test for COV-ID-19) 음성 결과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홍콩 내 격리 지정 호텔의 예약 확인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백신 접종 상태에 따라 도착 후 21일 또는 14일 동안 의무 격리를 하게 된다.

2021년 6월 30일부터 홍콩으로 돌아오는 홍콩 거주자는 도착일 혹은 도착일 전 14일 이내에 대한민국에서만 머물렀던 경우 다음의 세 가

지 조건을 충족하면 격리 지정 호텔에서 7일간의 단축 의무 격리 조치가 적용된다.

1. 백신 접종을 완전하게 마치고 백신 접종 기록 소지
2. 홍콩 도착 시 핵산 검사 음성 결과서 소지
3. 지난 3개월 이내에 실시한 검증된 혈청 항체 검사에서 양성 결과 증명서 소지

또한, 격리 기간 중 2번의 핵산 검사를 받고, 격리 해제 이후 7일간 자가 모니터링을 준수해야 하며, 홍콩 도착일로부터 12일째, 16일째, 19일째 되는 날에는 다시 의무 검사를 받게 된다. 비홍콩 거주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전하게 마치고 백신 접종 기록을 소지하며, 대한민국에서만 머물렀던 경우 입경이 허용될 예정으로, 홍콩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상기 명시된 내용의 격리 및 핵산 검사 요건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관련 시설의 진척 상황에 따라 홍콩 정부는 7월 내로 두 번째 단계의 계획을 시행하여 공항 입경객에 자기 부담 방식의 혈청 항체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비홍콩 거주자의 홍콩 입경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 -

www.coronavirus.gov.hk/eng/inbound-travel.html

www.info.gov.hk/gia/general/202106/21/P2021062100692.htm

200만명 이상 홍콩 시민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달성



매튜 청 당시 정무총리(사진 뒷줄 중앙)는 백신 접종소를 찾아 접종에 동참한 청년들을 격려

5월 30일 기준, 홍콩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1차 백신 접종을 마친 숫자가 23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수치는 홍콩 인구의 약 21%를 차지하며, 16세 또는 이상의 백신 접종 자격이 있는 사람은 시노백과 바이오앤텍 백신 중에 선택할 수 있다. 홍콩은 지난 2월 26일부터 우선 접종 대상자 그룹(의료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3월에는 우선 접종 대상자 그룹이 30세에서 59세 이하 일반인, 홍콩 영외에서 수학하는 16세 이상 학생, 가정 도우미에게까지 확대되었으며, 4월 15일 정부 발표에 따라 더욱 확대하여 16세부터 29세 연령도 접종 대상에 포함되었다.

홍콩의 선구적인 코로나-19 비강 백신 최고상 수상

홍콩대학(HKU)이 개발한 코로나-19 비강 분무 백신 '벡터플루원 (Vector Flu ONE)'은 제네바 국제발명품전시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1년 제네바 발명 심사데이에서 심사위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권위 있는 금상을 수상했다. 비강 백신은 기존에 약독화 인플루엔자 생백신의 기술 플랫폼(이하 DeINS1 LAIV)을 기반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처음으로 수행하며, 홍콩대학의 코로나-19 비강 분무 백신은 다음의 몇 가지 고유장점이 있다.

- 비강 분무 형태로 사용하기 쉬움 (주사 불필요)
- 비강 내 일선 면역 보호 제공
- 바이러스 게놈에서 핵심 유해 요소(NS1)를 제거하여 안전성 강화

- 섭씨 2-8도 온도에서 보관 가능 (극저온 보관 불필요)
- 발육란 배양 또는 MDCK 세포배양으로 쉽게 생산 (독감백신을 통해 이미 입증된 생산시스템)

DeINS1 LAIV 기술은 빠른 유전자 변형을 통해 코로나-19 변이와 사스 및 메르스와 같은 기타 전염병 백신을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유연한 백신 플랫폼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 -

https://www.hku.hk/press/news_detail_22538.html?fbclid=I-wAR0CKq2Rvd0phsWQW6tUHuTyYmf-Q0D49DKEFqldK76j-QsPJzRvCGY-

홍콩아트바젤 성황리에 개최

제9회 홍콩아트바젤이 지난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완차이에 있는 홍콩컨벤션전시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홍콩아트바젤은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수많은 관람객이 세계 각국의 예술 작품을 감상할 정도로 대중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2020년 현장 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지만, 올해는 23개국과 지역의 100여 개의 주요 화랑에서 선보이는 미술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홍콩의 활기찬 예술 발전과 함께, 홍콩은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각국의 1등 화랑과 경매하우스를 지속해서 유치하여 입지를 다지고 있다. 한 예술시장 분석업체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의 세계 미술 시장 점유율은 2019년 17.5%에서 2020년 23.2%로 런던을 처음으로 추월했고, 2020년 예술작품, 콜렉터 작품, 골동품 수출입 총액은 336억 홍콩달러로 2017년 173억 홍콩달러보다 두 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홍

콩이 아시아 지역에서 예술 무역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징표이다.

홍콩특별행정정부에서는 예술 개발과 예술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는데 전념해 왔다. 서구룡문화지구의 M+뮤지엄과 홍콩고궁박물관이 올해 말과 내년 중순에 각각 개관할 예정이며, 이미 새로 확장되어 개관한 홍콩미술관과 더불어 홍콩의 새로운 문화 명소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동구룡문화센터가 2023년 하반기에 준공되어 현지 예술인들에게 아트테크에 관한 육성 플랫폼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 -

<https://www.artbasel.com/stories/introducing-art-basel-live>

우수인재입경계획(QMAS) 연간 할당량 확대

지난 2020년 11월, 정부는 홍콩의 인재 풀을 확대하고 아시아의 세계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인재입경계획의 연간 할당량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대변인은 “우수인재입경계획은 2006년 6월부터 홍콩이 고급 기술 또는 재능 있는 인재를 유치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통로이다”라고 설명했다. 2006년부터 총 7,127명의 신청자가 우수

인재입경계획 하 할당 인원내 선정되었다. 이후 2018년 8월, 재능 목록이 최초로 발표된 후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선정 인원도 2017년 411명에서 2019년 874명으로까지 증가했다. 할당량이 가장 많은 업종으로는 금융회계서비스(25%), 정보기술통신(23%), 건축, 측량, 엔지니어링건설(8%)이었다.

우수인재입경계획에 대하여

우수인재입경계획은 인원 쿼터 기반의 고급기술인재 유치제도이다. 지원에 합격한 신청자는 홍콩 입경 전에 현지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되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미혼인 자녀를 홍콩으로 같이 데려올 수 있다. 평가는 할당량 기반의 포인트 채점 제도에 의해 이루어지며, 세계 유명 대학 졸업자, 재능 목록에서 각 직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및 국제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을 위한 보너스 포인트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 -

www.immd.gov.hk/eng/services/visas/quality_migrant_admission_scheme.html www.talentlist.gov.hk/en/index.html

우수인재입경계획

전 세계 인재들의 홍콩 진출 장려를 위한 제도

홍콩에서 직장을 구하지 않았어도 지원 가능

재능목록의 요건을 갖춘 지원자에 평가시 높은 점수를 부여

+ 연간 허용 할당량을 두 배인 **2,000명**으로 증가

https://www.immd.gov.hk/eng/services/visas/quality_migrant_admission_scheme.html
<https://www.talentlist.gov.hk/en/imf.html>

HONG KONG

홍콩 애드미럴티와 완차이 사이의 빅토리아 하버 산책로 개방

빅토리아 하버를 따라 홍콩 애드미럴티의 타마르에서 완차이 부두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는 시민을 위한 더 넓은 휴식공간으로 확대 개방되었다. 새롭게 개방된 공간에는 예술작품뿐만 아니라 파빌리온, 의자 및 조경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이 편하게 앉아서 빅토리아 하버를 감상할 수 있다.



완차이 수변의 피어사이드 지구 야경



홍콩 애드미럴티의 타마르에서 홍콩컨벤션전시센터까지 연결되는 산책로에 설치된 예술작품



홍콩 컨벤션전시센터와 완차이 부두 구간 사이에는 액자를 형상화한 방문객 포토존에 네온 조명 설치로 멋진 하버 풍경 사진촬영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SPOTLIGHT HONG KONG

홍콩 고유야생동물의 발견

홍콩에는 다양한 고유야생동물이 포진해있다. 고유 서식지인 홍콩의 이름을 따서 붙인 지역 하천과 삼림지대에서 발견되는 동물 세 종을 소개한다.



홍콩 파라다이스 피쉬(Hong Kong Paradise fish)는 유일한 민물고기종이다. 긴 등 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를 가진 타원형의 압축시킨 모양의 체형을 가지고 있다.



작은 숲이 우거진 개울에 널리 분포하는 홍콩클럽테일(Hong Kong Clubtail)은 밝은 녹색 눈을 가진 중간 크기의 검은색과 노란색 점자리이다.



홍콩에서 유일한 도롱뇽종인 홍콩뉴트(Hong Kong Newt)는 신계지역, 란타우 및 홍콩섬 산 속의 개울에 널리 분포한다. 몸통 색상은 밝은 갈색에서 어두운 갈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복부 표면은 주황색의 반점이 흩어져있다.